EMERiCs
이슈분석

2016년 8월 12일
중동부유럽 | [경제] 세르비아

세르비아의 국유기업 개혁과 사회·경제적 영향

Mihajlo Djukic 연구원
베오그라드 경제학연구소

주요 내용

□ 개혁되지 않은 국유기업은 세르비아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며, 재정적·사회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침.

□ 2000년 이후 출범한 세르비아 정부는 공공부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, 사실상 실행되지 않음.

□ 세르비아 정부의 재정적·인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인해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

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
TEL 044-414-1076 E-MAIL emerics@kiep.go.kr
http://www.emerics.org/ http://www.kiep.go.kr/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1 이슈 현황

개혁되지 않은 국유기업은 세르비아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며, 재정적·사회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침.

- 오늘날 세르비아의 국유기업은 기술적 낙후, 저생산성, 불충분한 투자·방만한 경영, 불투명성 및 정부가 책정한 왜곡된 가격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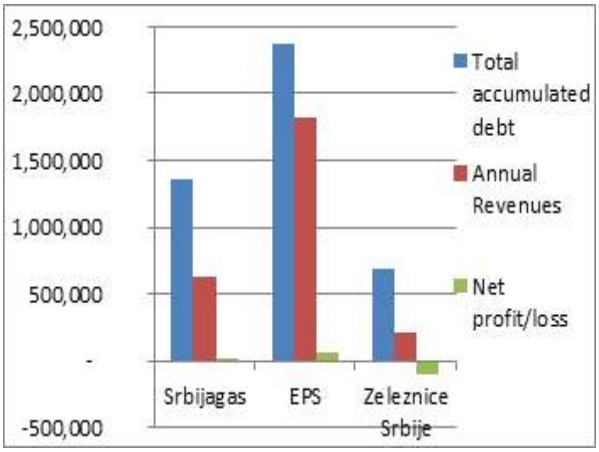
- 세르비아 내 양대 국유기업인 세르비아전력회사(EPS)와 세르비아 가스(SrbijaGas)의 총 누적부채는 20억 유로(한화 약 2조4,562억 원)를 웃돌며, 2015년의 연간 총 재정 적자액을 크게 웃도는 실정[1)]
  - 2012년 국유기업의 정부구매 총액은 세르비아 전체 공공기관의 정부구매 총액의 두 배가 넘음.

- 2011년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, 세르비아철도(Serbian Railways)의 노동생산성이 EU 평균의 29%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

- 2007~2012년간 국유 보험회사인 두나프 오시구라녜(Dunav Osiguranje)는 가입자의 납입금 총액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총 임직원의 수를 약 50%나 확대
  - 국유기업이자 통신사업분야의 마켓 리더인 텔레콤 세르비아(Telekom Srbija)는 총수입이 경쟁 3사의 총수입과 같았으나, 이들 경쟁사보다 무려 세 배나 많은 임직원을 고용

그림 1. 3대 국유기업의 재정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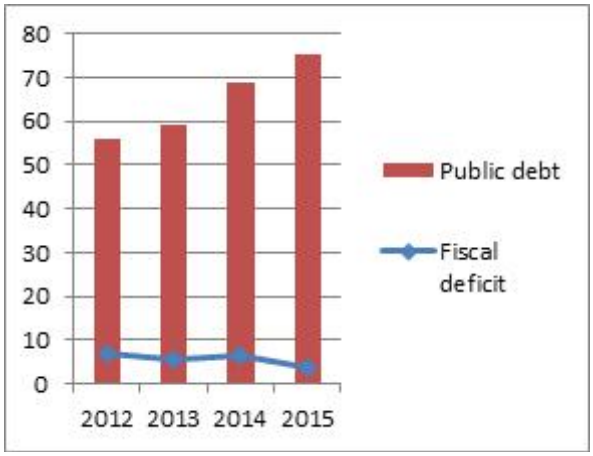
(단위: 유로)



자료 : 세르비아경영자료원
주 : 2015년 12월 31일 기준

그림 2. 연간 재정적자와 총 공공적자

(단위: GDP 대비 %)



자료 : 세르비아 국립은행
주 : 2012~2015년 기준

1) 2015년도 총재정 적자액은 12억 유로로 이는 GDP 대비 3.8%이다.

- 2014년 세르비아 재정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, 세르비아에는 1,400여개의 국유기업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이들은 세르비아 내 모든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1/4에 달하는 약 25만 명의 임직원을 고용함.

- 한편 국유기업의 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연간 GDP의 2~3%를 차지하며, 누적 총 손실액은 GDP 대비 13%에 달함.
  -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국유기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실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.

2 원인과 분석

2000년 이후 출범한 세르비아 정부는 공공부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, 사실상 실행되지 않음.

- 1990년대 세르비아에서 단행된 '사회주의 경제로부터의 전환'과 '민영화'는 단지 부분적으로 불투명한 규제와 부패 문제에 한해서만 적용되었고, 민영화 프로세스는 2000년 정권이 교체된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함.

- 현재 민간부문이 세르비아 경제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나, 1990년대의 경제제재와 핵심시장의 상실, 그리고 불충분한 투자 등으로 인해 이미 낙후된 수많은 국유기업이 여전히 존재

- 2000년 이후 집권한 세르비아 정부에 이러한 낙후 국유기업의 존재는 심각한 경제적·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나, 역설적으로 이러한 국유기업은 정부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우 유혹적인 경제적 원천이 되기도 함.

세르비아 정부의 재정적·인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인해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

- 세르비아 내 국유기업이 처한 상황과 개혁이 부재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.
  - 세르비아 정부는 투자와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·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음.
  - 부채율이 높고 기술적으로 낙후된 국유기업들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음.
  - 국유기업이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, 만일 이들이 정리해고를 시행한다면 사회

적인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.

- 세르비아 정당들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유기업의 경영 기회를 악용해 옴.

- 결국 국유기업 개혁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부재는 정부가 현상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을 퍼 나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

- 국유기업 개혁의 지연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함.
  - 조세를 과다하게 지출하도록 만들며 재정 적자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공 부채를 증가시킴.
  - 국유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실수요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면서 왜곡된 저실업률 현상을 초래
  - 불투명한 환경에서 진행된 비즈니스적 관행은 기업 내 부패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함.

3 전망과 시사점

최근 재정을 재건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의 결과가 고무적이기는 하나, 세르비아 정책입안자들이 국유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을 중단시키기는 어려울 것임.

- 2016년 세르비아 예산안에 반영된 보조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, 이는 주로 국유기업에 할당됨.

- 국유기업의 높은 누적적자액을 감안하면, 향후에도 이들은 세르비아의 공공 부채를 증가시키는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음.

- 2016년 7월, 과도정부 기간에 보르(Bor) 구리광산 복합단지에서 9억 유로(한화 약 1조1,052억 원)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
  - 더불어 해당 복합단지의 구조조정 전략은 세르비아 정부의 국유기업 부문에 대한 개혁 의지가 부족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임

- 2014년 채택된 정부의 재정 재건 프로그램이 공공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를 진정지킴.
  - 그러나 현재 세르비아 경제 발전 수준과 비교하면, 공공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임.

- EU, IMF, EBRD 등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, 세르비아 정부가 거시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 EMERiCs

출처

- Fiscal Council of the Republic of Serbia (2016), Fiscal developments in 2016 consolidation and reform in the period 2016-2020.
- Arsic, M. (2012), Reforms of state and socially-owned enterprises, Quarterly monitor of economic trends and policies in Serbia.
- Fiscal Council of the Republic of Serbia (2014), Analysis of the company owned by the state: fiscal aspect.
- The World Bank (2011), Railway Reform in South East Europe and Turkey On the Right Track?, http://bit.ly/2b67yfq
- National Bank of Serbia, http://www.nbs.rs/
- Serbian Business Registers Agency, http://www.apr.gov.rs/